



모바일 단말 액세서리 이젠 인

단말 보호에 패션까지 '일석이조' ... 가죽·아머케이스·조이스틱 등 인

휴대폰·PMP·MP3P 등 디지털기기 시장이 커지면서 주변기기들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 기기를 보호하는 케이스 판매량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 휴대폰의 경우, 슬림폰과 컬러폰의 유행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케이스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PMP도 제품 보호를 위한 가죽소재 가방(파우치)과 아머케이스(armorcase)가 필수품으로 인식되면서 판매량이 늘고 있다. PMP제조사들은 신제품 출시 때, 이를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게 현재 추세다. 가격대가 떨어지면서 보급화되다시피한 MP3P에서는 패션을 강조하는 케이스가 젊은층에게서 인기를 끌고 있다.

글 | 임일곤 기자(아이티타임스)



휴대폰의 경우, 제품 보호부터 개성 연출까지 주변기기가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슬림 휴대폰이 인기를 끌면서, 외부의 충격과 흠집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는 기능의 케이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또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상의 휴대폰 케이스가 등장하면서 젊은층에서는 이를 개성 표출의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다. 색상도 다양해지는 추세. 재질도 가죽 중심에서 투명한 플라스틱과 실리콘으로 바뀌고 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부터 옥션에서는 휴대폰 케이스 매매량이 증가. 올 1분기 판매량이

1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션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은 투명 하드 케이스. 외부로 노출된 슬라이드폰의 액정화면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 케이스는 휴대폰이 슬림화되면서 케이스를 부착해도 두께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과 1000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가.

또 실리콘 컬러 케이스도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컬러 케이스는 실리콘을 사용해 좀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동시에 필이나 유광 제품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

특히 컬러 케이스 중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블랙 제품. 지난해 블루 블랙 휴대폰이 유행하면서 많은



휴대폰 사용자들이 세련된 검정색 계열의 휴대폰을 구입했지만 검정색 휴대폰은 흠집이 날 경우, 쉽게 티가 났었다.



이러한 검정색 휴대폰의 단점을 보완하고 구입 초기의 세련된 느낌을 지속하기 위해 검정색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모토로라의 핑크레이저, LG전자의 화이트 초콜릿폰, 핑크 초콜릿폰 등 휴대폰 색상이 다양해지면서 분홍색·노란색·파란색 등을 기반으로 한 파스텔톤 계열의 케이스도 인기 물이 중. 이러한 컬러 케이스의 경우, 9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이외에도 메탈 느낌의 하드 케이스와 다양한 무늬가 새겨진 가죽 케이스도 인기가 있다.



PMP. V43용 아머케이스

PMP, 아머케이스 인기

PMP의 경우, 제품 보호를 위한 주변기기가 각광을 받고 있다. 휴대폰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LCD 화면과 고가의 제품이라는 특성상 케이스가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LCD 화면의 흠집이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주변기기를 입히는 게 지금의 추세다.

특히 아머케이스가 사용자들의 필수품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투명한 케이스의 아머케이스는 제품 보호는 물론 기기 작동과 LCD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

가죽파우치도 제품 보호에 탁월한 역할을 하면서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제품 케이스는 이제 '주변제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최근 PMP제조사들은 주변기기를 PMP에 포함해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다.

아머케이스를 생산하는 조이트론의 김주민 실장에 따르면, "최근 PMP 아머케이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 큐브의 'V43'이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게 되면서 'V43' 전용 아머케이스의 판매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아머케이스는 한 모델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금영비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가죽케이스의 경우,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아머케이스는 한 모델에 정확히 들어맞아야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 보통 금영비로 1000~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조사가 직접 뛰어들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아머케이스 판매량은 제품 판매량을 대략 미뤄 짐작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 '대박'을 터트린 모델 외에는 만들기 위험하다는 것. 때문에 10만 여대 이상 팔렸다는 'V43'은 주변기기 업체들이 직접 나서서 아머케이스를 제작했다.

조이트론도 V43용 아머케이스를 만들어 판매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우리 쪽에서 V43용 아머케이스를 공동구매로 판매했을 때 일주일만에 400여개가 팔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이트론은 현재 오드아이 등에서도 의뢰가 올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오픈소스를 지원하는 'V43'의 경우, 조이스틱을 활용한 게임을 구현할 수 있어 주변기기로서 조이스틱도 인기를 끌고 있다.

조이트론이 최근 선보인 'V43'용 조이스틱은 휴대성을 최대한 고려해 개발한 제품. 이 제품은 방향키 등이 들어있어 게임 조작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 조이스틱을 반으로 접을



조이트론이 최근 선보인 V43 용 조이스틱

수 있으며, 늘었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선을 사용해 휴대성이 뛰어나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PMP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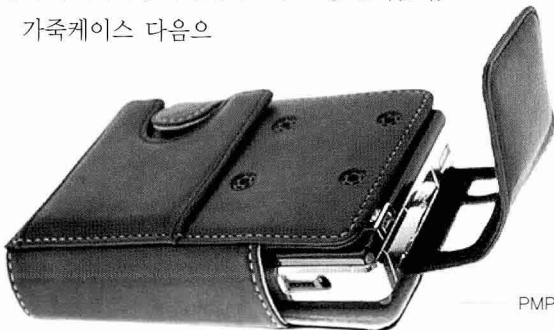
PMP의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가죽케이스도 인기다. 특히 PMP만 따로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형 가죽케이스가 잘 팔린다. 단순히 동영상 재생뿐 아니라 내비게이션·MP3P·사전·e북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PMP의 특성상 PMP만 따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케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MP3P 보급되면서 가죽, 실리콘 케이스 '인기'

젊은층들에게 보급품이 되다시피한 MP3P도 다양한 케이스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MP3P 케이스는 가죽, 실리콘 그리고 투명 플라스틱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고급스러운 멋을 강조한 가죽케이스이다. MP3P는 갈수록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있어 젊은층에게 인기 액세서리로가 되가는 추세. 케이스도 이에 맞춰 고급화되고 있다. 특히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신세대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목걸이형과 다이어리형 가죽케이스가 그 중 인기품목.

가죽케이스 다음으



PMP용 가죽 파우치



다양한 MP3P용 케이스

로는 실리콘 케이스가 인기다. 특히 세계 MP3P시장에 돌풍을 몰고 온 아이팟(ipod)용 실리콘 케이스가 아이팟과 함께 히트를 치고 있다. 아이팟의 디자인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제품에 흠집이 나지 않게 고안된 실리콘 케이스는 아이팟 사용자들 사이에서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최근에는 다양한 컬러의 실리콘 스킨도 개성을 중시하는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